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생명의전화'와 협력해 심야 상담 공백 줄인다

- '생명의전화' 8월 6일부터 심야 상담 지원, 자살위기 상담 대응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원장 하상훈)와 협력하여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와 생명의전화 간 상담 연계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명의전화는 오는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심야시간(22시~08시) 자살예방상담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응대율을 높이고 자살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인력을 충원하고 상담전화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민간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 정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실제 근무인력 200명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상담인력이 전문교육 등을 거쳐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살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생명의전화는 오랜 기간 자살예방 활동을 이어오며 자원봉사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살예방상담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온 민간 전문기관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생명의전화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일주일 간의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오는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심야시간(22시~08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을 지원한다. 해당 시간대 109의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인 경우, 대기 중인 내담자가 안내에 따라 생명의전화 상담 연결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공공의 자살예방 상담체계와 민간의 축적된 상담 경험을 연계함으로써, 고위험 상담이 많은 심야 시간대의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자살 위기에 놓인 국민이 상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자살위기에 놓인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창구인 만큼, 단 한 통의 전화도 소중하게 여기고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상담인력 확충과 함께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필요한 순간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은 “자살위기에 놓인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 상담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생명의전화 가 오랜 기간 자살예방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109의 야간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협력이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인력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상담 응대율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자살위기 상담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자살예방정책과	담당자